

지역 소식 통

코로나19 관련 미담 훈훈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으로 공포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다양한 미담 사례가 쏟아져 나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김제시는 관내 업체 및 단체 등에서 손소독제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후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김제농협 로컬푸드(조합장 최진오)에서는 격리조치된 가정에 대해 로컬푸드 생산 농가와 협의해 신선식품을 기부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동김제농협 로컬 푸드는 코로나19로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가구에 대해 사제가 진정 될 때까지 신선식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비상급수시설 운영 중단

김제시는 27일부터 음용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개소 운영을 중단한다.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확진 환자 급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되어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감염병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김제시는 지난 2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방역 및 선별진료소 전담인원 배치 등 확산 방지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재해예방사업 추진

완주군이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완주군은 지난해보다 23억 증가한 322억을 하천정비, 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5개 분야 27개소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하천 재해예방사업 133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4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2억, 소하천 정비사업 69억,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4억을 투자해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 인구성장 플랜 '총력'

2020년 인구회복 골든 타임... 2022년 인구감소 제로화
2025년 10만 인구회복 목표로 '인구정책 종합플랜' 가동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해마다 감소하는 지역인구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붙였다.

김제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 위협단계(0.259)에 있는 지역적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인구 8만3,000명의 마지노선을 지켜가기 위해 2020년도를 인구회복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인구정책 종합 플랜을 본격 가동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제시는 올해 8만3,000명을 넘는 물리적 수 없는 인구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2022년까지 인구감소 제로화를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해 인구정책 진단에 우선 착수했다.

출생친화, 보육, 교육, 청년정착 등 인구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대분야103개 사업에 대해 인구영향

성과분석을 실시, 간과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은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부서별 정책이 인구유입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재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출산장려금, 전입 장려금, 결혼축하금 등 인구담 실행으로 효능감을 높여나가면서 지평선산단 근로자 기숙사비지원,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청년인턴지원제 등 성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는 s/w 위주의 맞춤형 단기사업과 핵심과제 발굴 영역과 연계하여 혁신도시권, 시내권 등 권역별로 정주하고 싶은 특색있고 매력있는 공간 조성, 공공임대 행복주택 사업 등 h/w 중심의 중장기 사업,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청년주택수당지원, 청년창업 공간조성 및 공무원시험준비반 등

청년정착과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12개 세부사업에 96억원을 투입, 지역발전의 허리인 청년층을 두텁게 해나감으로써 인구구조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고장, 내직장 주소 갖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시민과 함께 인구위기를 공감하며 해법을 찾아가는 한편, 민·관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김제시-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 기관 간 상호협조와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박준배 시장은 "김제시는 지속되는 인구감소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 부서가 합심하여 인구회복의 마중물이 될 정주 인프라 사업 및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김제로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만경읍(읍장 최병인)은 26일 읍민들의 출입이 많은 만경을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대하여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만경읍, '코로나19' 철저 대응

시민들의 출입 많은 읍사무소 등... 지속적 소독·발열체크 실시

김제시 만경읍(읍장 최병인)은 26일 읍민들의 출입이 많은 만경을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대하여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코로나확진자가 김제시에 방문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회성이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민원실, 화장실 등을 중점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또한 출입구에 비접촉식 체온계를 비치하여 별도의 발열체크를 실시해 읍사무소 출입을 통한 감염증 확산 예방에 대비했다. 뿐만아니라 경로당 28개소, 문화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대해서도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최병인 만경읍장은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현재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예방소독으로 주민들이 읍사무소를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올해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

농업기술센터 72개 사업 대상 선정... 농업경쟁력 향상 기대

완주군이 올해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26일 완주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 2020년에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선정 지원되는 72개 사업은 고구마재배 일관기계화 기술시범사업 등 신기술보급사업과, 농경문화소독화모델구축 등 마을 및 동아리 등 공동사업,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등 단체지원 등 분야별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새 기술접목과 생산비 절감 등 완주군의 농업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농업관련기관, 농업인단체 대표, 선도농가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대상자 선정과 함께 심의회는 농업농촌의 발전방향 및 정책 등 농업관련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함께 고민하



26일 완주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1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는 시간을 가졌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 및 단체는 사업추진 방법과 보조금 집행, 관리요령 등에 대한 분야별 담당직원의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장은 "3월부터 서서히 영농철이 시작되므로 농촌지

도사업 대상자가 조기에 사업을 착수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지체없이 극복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으로 농도피어 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청년활력사업'으로 취업 바람 일으킨다

완주군이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과 채용된 청년 모두를 지원한다.

26일 완주군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산단 청년 활력UP'의 참여 청년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 산단 청년 활력UP은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발굴하고 연계해 신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역 내 기업과 청년이 상생, 성장하며 지역 활력을 도모한다.

모집대상은 만 39세 미만 청년으로 완주군에 거주하거나 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완주로 전입해야하며, 참여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봉동 둔산리 근로복지지관

의 로컬 잡 센터를 통해 방문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월 200만원까지 인건비의 80%를 최대 2년간 지원받고, 청년들은 자격증 취득비용 등 취업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지난 10일까지 관내 10인 이상 200인 이하 규모를 충족하는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했으며,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청년이 수행할 업무 내용과 역량강화 가능성, 근무환경 등 전반적 요건을 고려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역량 있는 기업과 청년을 서로 연계해 지역 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